목 차

글로벌 AI 동향 1

해외
- 美월가 점령한 AI 금융… 투자성향 파악–포트폴리오 조정 '척척' 1
- 日, AI 활용 바이러스 제작 첫 체포…"AI 범죄 활용 현실화" 2

정책
- AI로 보이스피싱 차단, SKT 개발 추진... 민관 협업 첫 성과 3
- 산업부, 'AI 시대 신산업 전략' 수립 박차…전문가 의견 청취 4
- "먹을게 떨어져 쌀만 끓여 먹었다" 듣고 위기 감지한 'AI 노인말벗' 5
- '소버린 AI' 개발해야 하는데...'데이터'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6

기업
- "당신이 뭘 살지 알고 있다"…30대 女, 쇼핑갔다가 '깜짝' 7
- AI가 고객 취향 정밀 분석… 모델·감독 없이도 TV광고 뚝딱 8
- 챗봇이 달라졌다…'생성형 AI' 도입 나선 은행들 9

개인정보
- 美기술 기업들, AI관련 EU 당국과 협력…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 10

글로벌 AI 동향

美월가 점령한 AI 금융… 투자성향 파악–포트폴리오 조정 '척척'

■ 미국의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, 씨티그룹,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AI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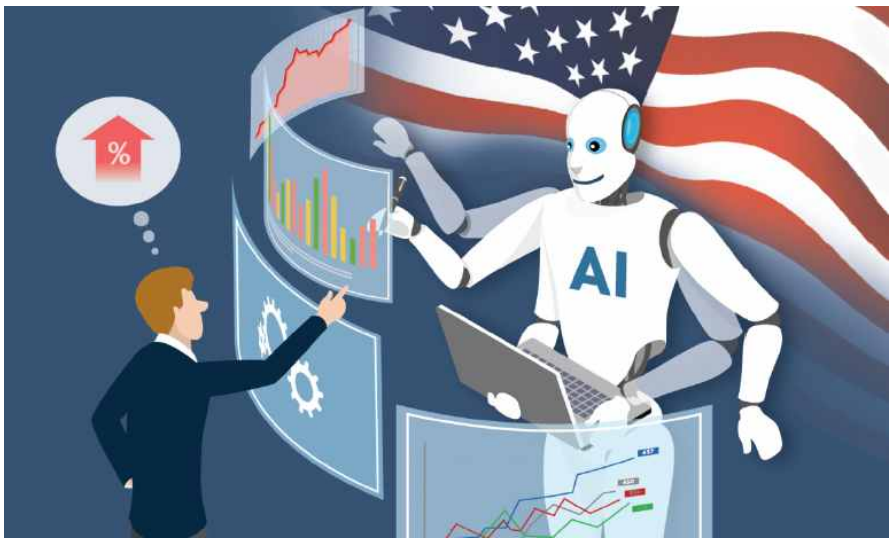
– 테드 픽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(CEO), "AI를 활용하면 자산관리사들이 1주일동안 할 분량을 10~15시간 내에 할 수 있다"며 "고객과의 회의를 메모하고,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도구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"이라고 언급

– 이동근 삼정KPMG AI센터 전무, "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발현된 금융업에서 AI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"이라며 "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편리성,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"고 진단

■ 월가에서는 AI를 활용해 고객별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는 중

– 고객의 재무 목표,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해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AI가 '초(超)개인화 서비스'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커(PB)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

〈 자료사진 〉



■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, "생성형 AI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대화형 챗봇으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됐다"며

– "(AI는) 금융사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것"이라고 전망

출처 : 동아일보, 美월가 점령한 AI 금융… 투자성향 파악-포트폴리오 조정 '척척' (2024.6.17.)

日, AI 활용 바이러스 제작 첫 체포…“AI 범죄 활용 현실화”

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,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, 돈을 빼돌리려는 20대가 체포됨

– 용의자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컴퓨터,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입수한 부정 프로그램 정보를 조합, 바이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남

■ 용의자가 활용한 AI는 챗GPT 등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인터넷에 공개된 복수의 대화형 AI인 것으로 알려짐

– 특히 주목되는 점은 용의자가 IT회사 경력이나 관련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고, 이는 고도의 지식, 경험이 없어도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

– 요미우리 신문은 “질문에 제한이 없거나 느슨한 AI를 사용하면 랜섬웨어의 설계도나 감염시키고 싶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”고 지적

■ AI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

–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폭발물 제작 등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

– 이에 따라 각 개발회사는 위법한 정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대답은 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AI가 개발돼 공개되면서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는 상황

■ 요미우리, “지난해 6월부터 유료판을 포함해 우후죽순처럼 ‘악의 생성형 AI’가 개발돼 공개됐다”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

– “미국 인디애나대 논문에 따르면 2023년 2~9월 위법정보 등을 양산하는 생성형AI가 212건 확인됐다”고 언급

출처 : 세계일보, 日, AI 활용 바이러스 제작 첫 체포…“AI 범죄 활용 현실화” (2024.5.28.)

AI로 보이스피싱 차단, SKT 개발 추진... 민관 협업 첫 성과

■ 정부·민간·공공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통화 데이터 분석하고, 이를 통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협력하기로 합의

–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금융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AI·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'을 체결

– 향후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·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,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전망

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 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할 계획

–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며,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·수집·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예정

〈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〉

■ 부처간 협업의 첫 성과는 SKT가 곧 내놓을 보이스피싱 탐지·예방 AI서비스로 구체화될 전망

– 이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을 포함

–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,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하는 방식

출처 : 머니투데이, AI로 보이스피싱 차단, SKT 개발 추진... 민관 협업 첫 성과다 (2024.6.3.)

산업부, 'AI 시대 신산업 전략' 수립 박차…전문가 의견 청취

■ 산업통상자원부, 7일 오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'인공지능(AI) 시대의 신산업 정책' 전문가 간담회 개최

– 산업부는 지난달 'AI 시대의 신산업 정책'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하고 약 6개월에 걸쳐 AI 관련 정책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

–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AI의 산업 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구현모 KT 전 대표,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,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, 이병곤 DN솔루션즈 부사장 등 AI전문가들이 참석

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〉

■ 최재식 교수, "현재 한국의 제조 분야 AI 기술 수준은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"라고 진단하고 "2030년까지 AI기술을 개발·도입하는 선두 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 차이가 클 것"이라고 언급

■ 안덕근 장관, "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 전략 수립에도 '속도'가 매우 중요하다"면서 "지난달 AI 자율 제조 전략 발표에 이어 이달에는 AI 디자인 확산전략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"고 밝힘

– 산업부는 지난달 'AI 자율 제조 전략 1.0' 발표에 이어 매달 디자인, 연구개발(R&D), 에너지, 유통,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

출처 : 무역뉴스, 산업부, 'AI 시대 신산업 전략' 수립 박차…전문가 의견 청취 (2024.6.7.)

“먹을게 떨어져 쌀만 끓여 먹었다” 듣고 위기 감지한 ‘AI 노인말벗’

■ 파주시에 거주하는 60대 독거인은 AI 상담원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“집에 먹을 것이 없고, 쌀만 끓여 먹었다”고 어려움을 호소했으며, AI 상담원은 해당 발언에서 위기 징후를 감지

– 경기도,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‘AI 노인말벗서비스’ 신청자가 5,000명을 넘었다고 밝힘

–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주1회 일정한 시간에 어르신의 집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 AI 상담원이 안부 전화를 걸고,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운영

〈 경기도청 전경 〉

■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AI 노인말벗서비스는 같은해 12월까지 1,061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,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서비스에 돌입

■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, “경기도는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 중”이라며,

– “AI 노인말벗서비스는 도에서 추진한 첫 번째 AI 돌봄서비스로 현장의 다양한 반응이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해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계획”이라고 언급

출처 : 경향신문, “먹을게 떨어져 쌀만 끓여 먹었다” 듣고 위기 감지한 ‘AI 노인말벗’ (2024.6.13.)

‘소버린 AI’ 개발해야 하는데...‘데이터’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

■ 국내 인공지능(AI) 기업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상황

– 전 세계적으로 구글·마이크로소프트(MS)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은 소버린 AI(국가별로 자체 언어·문화 기반으로 거대언어 모델을 구축해 AI 주권을 지키는 것) 확보에 뛰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·중견 AI 기업에 학습용 데이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

■ 인공지능의 관건은 데이터이며, 질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시킬수록 AI의 성능을 고도화해 정확한 입력값을 도출 가능

– 학습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특히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실정

〈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〉

데이터 유통채널 부족	20.3
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	29.3
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	31.1
구매 데이터의 가격 부담	39.4
데이터 거래 절차 및 방법 미숙	17.0
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유통·활용시 법적 문제·법률 지원	16.9
구매 데이터 저장 공간 부족	28.3
개인정보처리 기술력 및 예산 부족	10.6
데이터 품질 문제	4.3
데이터 가공 문제	2.7
기타	0.2

■ 국내 AI 업계는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으며,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꼽힘

– AI업계 관계자, “기본적으로 인터넷상 정보를 학습하는데, 영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오픈AI나 구글에 비해 한글 데이터는 적다”고 토로

– 장병탁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, “AI는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(데이터가) 중요하다”며 “촉각·후각·미각, 광도·온도·습도, 압력·힘·속도 등 제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”고 언급

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, 사업체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 중 ‘구매 데이터의 가격 부담’이 39.4%로 가장 높았음

– 업계에서는 정부가 AI 산업 부흥을 위해 학습용 공공 데이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

출처 : 이투데이, ‘소버린 AI’ 개발해야 하는데...‘데이터’ 확보 어려운 국내 기업 (2024.6.3.)

"당신이 뭘 살지 알고 있다"…30대 女, 쇼핑갔다가 '깜짝'

■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객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상품 배치와 실시간 마케팅에 적용 중

– 매장 내 고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'피플 카운팅', 고객이 많이 머무르는 구역을 별도 색상으로 표현하는 '히트맵' 등이 대표적이며, 기업은 고객의 성별, 연령, 행동 패턴을 수치화해 분석한 뒤 마케팅에 활용

– 유통업계 관계자, "이전까지 오프라인 마케팅은 주로 담당자의 직감에 의존했는데, 얻을 수 있는 고객 정보 자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"이라며 "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졌다"고 언급

■ 지능형 CCTV, '높은 해상도'와 AI를 이용한 '딥러닝'(심층학습)이 가능해 대상의 유의미한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

–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찍으면 흰색, 원피스, 여성 등의 키워드를 저장하며,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AI가 고도화되면서 분석이 용이해짐

〈 행태정보를 통한 매장관리 시스템 모식도 〉

■ 개인정보를 둘러싼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

– CCTV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만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, 소비자가 자신만 알고 남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움직임이나 소비 행태를 기업이 알게 되기 때문

출처 : 한국경제, "당신이 뭘 살지 알고 있다"…30대 女, 쇼핑갔다가 '깜짝' (2024.6.17.)

AI가 고객 취향 정밀 분석… 모델·감독 없이도 TV광고 뚝딱

■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만 골라서 송출하고, 광고주에게는 광고에 대한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등 광고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AI가 활용 중

–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, AI 광고를 비롯한 글로벌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147억 달러(20조 2,000억 원)에서 매년 연평균 24.5% 성장해 2030년 약 920억 달러(126조 7,000억 원)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–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통신과 플랫폼에 기반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, 이를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

〈 글로벌 AI 마케팅 시장 전망 (출처: 프리시던스리서치) 〉

■ LG유플러스,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 패턴에 맞춰 분류하는 기술인 '커스터머360(C360)'을 개발

– 과거에는 성별·연령·직업·거주지 등 단순한 인적 사항만을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했지만, C360은 고객의 관심 분야와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해 1,700여개로 세분화한 뒤 비슷한 취향에 따라 총 249개 마케팅군으로 분류

■ SK텔레콤, 초거대언어모델(LLM)을 기반으로 광고 및 프로모션 문구를 자동 생성하는 'AI 카피라이터' 서비스를 운영 중

– 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프로모션 문구를 즉시 생성하고 월 수만 건 이상의 광고 문구를 생성할 수 있으며, 고객은 별도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현재 사용 중인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문구를 요청하고 제작물을 받을 수 있음

■ KT의 디지털광고대행사 플레이디, AI 기반 광고 전문 서비스 '아토(Ato)'를 통해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, 최적의 광고 전략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

출처 : 세계일보, AI가 고객 취향 정밀 분석… 모델·감독 없이도 TV광고 뚝딱 (2024.6.17.)

챗봇이 달라졌다…'생성형 AI' 도입 나선 은행들

- 은행업계는 4대 은행이 챗봇을 고도화하고 금융 비서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 중이라고 밝힘

- KB국민은행, 그룹 차원의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

  – KB금융은 '그룹 공동 생성형AI 플랫폼 구축' 프로젝트를 통해 9개 금융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, 총 사업비는 110억 원 이상으로 추정

  –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'리브넥스트' 앱에서 AI 금융비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

- 신한은행, 지난해부터 초거대 AI 도입 및 내재화를 추진 중

  – 그룹 공통 AI 컨택센터 플랫폼, AI 은행원, 신한 SOL뱅크 등에 AI 챗봇/음성뱅킹 서비스 등이 담길 예정

  – 특히 신한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내부 시험테스트(PoC)를 통해 챗GPT를 활용한 Q&A 서비스 기술 및 효과성 검증을 완료한 상황

- 하나은행, 금융공학과 AI,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해 투자자 맞춤 정보 제공하는 AI 퀀트(Quant) 서비스를 출시

  – 올해 상반기 중 앞서 출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'하이로보'를 중단하고,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플랫폼인 '아이웰스(AI Wealth)'에 통합·운영할 계획

- 우리은행, 생성형 AI 기반 'AI뱅커' 기능을 챗봇에 추가

  – 예적금 추천에 특화된 AI 뱅커로 단순 상품 추천이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맞춘 우대 이율 계산, 높은 금리 상품 추천 등을 수행할 예정

- 은행업계 관계자, "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 하기 위해 생성형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"면서도

  – "망분리 이슈를 비롯해 AI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(對)고객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"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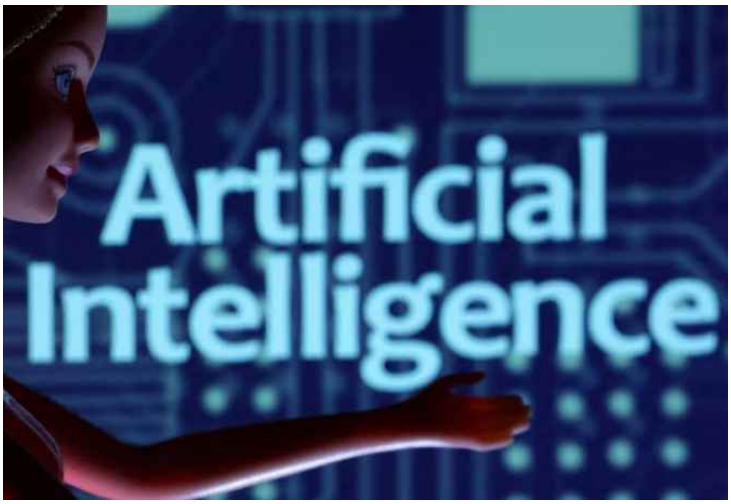
출처 : 조선일보, 챗봇이 달라졌다…'생성형 AI' 도입 나선 은행들 (2024.5.29.)

美기술 기업들, AI관련 EU 당국과 협력…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

■ 로이터는 29일(현지시각) 아일랜드 데이터 규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하여,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인공지능(AI) 제품이 유럽연합(EU)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

-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
- 그에 따라 AI 모델 학습을 위해 기업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,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규제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
- 또한, AI 모델이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

〈 AI 관련 자료사진 〉



■ 데이터보호위원회 데일 샌더랜드, “알파벳 산하 구글, 메타, 오픈AI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과 당국이 협의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”며

- “AI 분야,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의 신제품에 대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”고 언급
- 또한, 구글의 경우 이미 아일랜드 규제 당국과 협의하여 생성 AI Gemini(제미나이)의 개발을 연기 및 변경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힘

출처 : 글로벌이코노믹, 美기술 기업들, AI관련 EU 당국과 협력…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 (2024.5.29.)